

한국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일상생활의 공간적 특성*

최병두**

요약: 이 논문은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생활공간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겪는 다양한 유형의 (시)공간적 제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대해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 자료에 기초하여 고찰하였다. 이들은 일터에 대해 가시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가식적(허구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들은 타자의 '영역'으로 만들어진 일터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엄격한 통제 하에서 일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또한 주거, 소비, 여가 등을 위한 생활공간에서도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이동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층적 제약들로 인해 뿌리내리기 어려운 장소에서 매우 어렵게 살아간다.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겪게 되는 제약들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본국 출신의 이주자들과 국지적 및 탈지역적 네트워크, 그리고 본국 가족 및 친지들과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주어진 제약들에 대응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시공간적 제약들을 벗어나도록 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이러한 한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포괄적 의미의 지리적 지식(장소감과 지리적 상상력 포함)의 부족으로 심화된다. 이들은 결국 본국과 한국에 대한 혼종적 국가정체성뿐만 아니라 새롭고 낯선 삶의 현장에서 교란된 지역정체성으로 살아간다.

주요어: 이주노동자, 일터, 생활공간, 네트워크, 스케일, 지역정체성

1. 서론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전제로 한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과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적 압축은 다른 여러 생산요소들과 더불어 노동력의 초국적 이주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구적 차원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내 사회경제적 요인들, 예로 산업구조 변화, 소득 수준의 향상과 고학력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야기된 노동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

의 국내 유입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지역노동시장의 최하위층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이나 건설업, 기타 영세한 서비스업들에 종사하면서 이른바 3D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성장에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변화 및 유입국의 상황과 더불어 유출국의 경제적·정치적 상황 하에서 국제이주를 결심한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과정에서부터 주어진 지역사회에 정착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2-B00024).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bdchoi@daegu.ac.kr

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물론 사회제도적 조건 하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실제 이들이 겪는 경험적 어려움은 구체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들은 새로운 일터와 생활공간에 대해 직접적 경험뿐만 아니라 간접적 지식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신과는 무관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 즉 '타자의 공간'에 편입되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피동적 존재이며, 생활공간에서도 이동성이 제약될 뿐만 아니라 장소감이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불안정한 존재가 된다.

이주노동자들이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은 흔히 사회학이나 인류학 등에서 사회적 관계나 문화적 적응의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실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의 구체적 과정은 공간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지리학적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¹⁾. 특히 최근 외국인 이주자 일반 또는 개별 유형별 이주자들(예로,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등)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정현주, 2007; 최병두, 2009a 등 참조), 이들에 관한 공간적 접근의 중요성(최병두, 2009b)과 공간의 유형화에 기초한 방법론들(정현주, 2008; 박배균, 2009 등 참조)이 제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된 후 정착하게 된 지역사회에서 겪게 되는 경험과 의식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에 기초하여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²⁾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경험과 의식에 함의된 공간성을 4가지 유형, 즉 영역으로서의 일터(작업장), 장소로서의 생활공간, 공간적 상호연계로서의 네트워크, 그리고 활동의 중층적 규모로서의 스케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이에 더하여 이러한 공간적 경험과 의식을 내적으로 조건지우고 또한 이에 의해 형성되는 지리적 지식과 정체성을 고찰하고, 이에 내재된 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이주노동자의 삶의 공간성

공간은 시간과 더불어 인간 삶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조건지우는 가장 기본적 범주들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개인이나 집단)의 의식과 행동은 다른 인간이나 사물들, 현상이나 사건들을 통해 형성된 공간에 의해 규정되며, 또한 이렇게 규정된 시공간적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실천은 다시 사물들의 공간을 재편성하게 된다. 공간은 물론 지표상의 일부분으로 주어진 물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나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공간, 그리고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 형성된 의식적 공간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공간은 분석적으로 구분되지만, 현실에서는 서로 결합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주노동자 역시 이러한 공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 본국을 떠나 새로운 국가, 새로운 지역사회로 이주해 오면서 국간 물리적 공간을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향에서 이루고 있었던 사회적 공간을 벗어나 새롭게 형성된 일터와 생활공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이주를 위해 필요한 공간적 이동과 더불어 새로운 일터와 생활공간에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적 활동들을 영위하게 되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공간 의식(새로운 지리적 지식과 장소감, 지역정체성 등)을 구축하게 된다.

이주노동자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 내재된 공간적 특성들은 물론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내용들을 가지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적 용어들이 사용될 수 있다. 예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초국적 이동과 새로운 정착과정에서 형성되는 다인종·다문화적 공간을 지칭하기 위해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최병두, 2009b). 또한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문화이론으로 탈식민주의는 이질적 문화 요소들의 융해, 혼합, 재구성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제 3의 공간'(third

space)을 제안한다. 이러한 탈식민주의의 공간 개념은 예로 로스엔젤레스 한인타운에서 형성된 '혼성성의 공간'에서 탈정치화된 민족성이 혼종적 집단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재정착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에 응용되기도 한다(박경환, 2005). 다른 한편, '범세계주의'(cosmopolitanism)에서는 사람, 상품, 아이디어, 그리고 문화들의 혼합 장소로서 세계시민적 도시공간의 창출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공간은 "지구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도시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Yeoh, 2004; Harvey, 2009). 또한 초국가주의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국제이주에서 나아가 국경을 가로지르는 일련의 활동들과 이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초국가적 사회공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Roudonetof, 2005; Fuchs, 2007 등 참조).

이와 같이 초국적 이주 나아가 지구-지방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종적, 문화적 교류와 혼합(또는 혼종성)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들은 때로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예로 라우도네토프(Roudonetof, 2005, 118)는 '범세계화'라는 단어의 사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혼돈만 유발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신 '내적 지구화' 과정 즉 "지구-지방화의 조건 하에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사회생활의 현실은 초국가주의로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내적 지구화'란 거시적 지구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미시적 지구화의 현실을 조명하기 위해 벡(Beck, 2000)이 제안한 개념으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지구화 현상들을 지칭한다. 즉 내적 지구화란 상이한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과 기관들 간 이루어지는 초국가적 상호행위와 이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을 개념화하기 위해 제안된 용어로서, 상호행위의 공간 창출을 위한 물질적 및 비물질적 하부구조를 제공하며, 이에 따른 결과적 현실로 '초국가적 사회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초국가적 사회공간이라는 사고는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생활공간을 포함하여 초국가적

지역사회를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초국가적 노동시장의 공간에만 한정되기보다 다른 유형의 공간들, 예로 초국가적 대중음악의 공간, 초국가적 대중매체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다중적 정체성의 구성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간의 개념은 한편으로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창출되고, 경험/의식되는 공간을 개념화하고 이에 내재되거나 관련된 복잡하고 미묘한 현상들을 설명 또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 그러나 첫째, 이러한 공간적 개념들이 실제 이주노동자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물리적·사회적·의식적 공간들이 어떻게 창출되어, 경험/의식되며 또한 재편되는가를 체계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로,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개념과 같이 혼합된 공간 개념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터나 생활공간에서 겪고 있는 공간적 제약들이 어떻게 작동하며, 그 배경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둘째, 공간의 개념 속에 내재된 여러 가지 상이한 함의들, 예로 공간이나 지역(사회)의 개념과는 구분되거나 또는 그 속에서 세분될 수 있는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 등의 개념들이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세분된 용어들은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초국가적 이주를 설명하기 위한 주요한 개념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설명하기 위한 전통적 지리학 개념들의 응용은 사회학적, 인류학적 논의에서 거론된 공간의 개념들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과 결합하여 기존의 지리학적 개념들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지리학에서 제시된 분석틀과 개념들에 관해 이미 지리학 내에서 그 유용성과 문제점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기서 이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우선 이 관점이 일상생활의 반복적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공간적 경로와 장, 묶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Hägerstrand, 1970; Giddens, 1985).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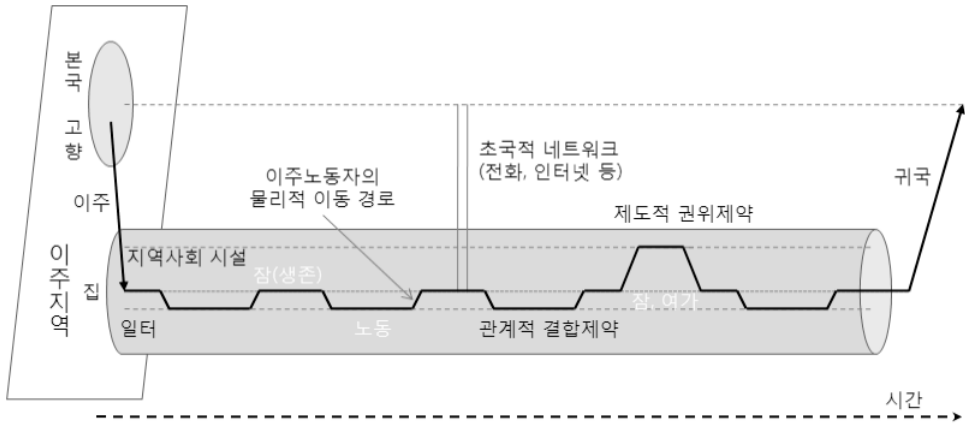


그림 1. 이주노동자의 일상생활의 시공간 다이어그램

주노동자들은 본국의 고향으로부터 이주지역으로 장거리 이주를 하게 되지만, 일단 일정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일터와 집 사이를 왕복하는 일상적 공간 활동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 과 '자는 시간' 의 단 두 종류의 시간으로 살아간다는 서술에서 전형적으로 표현되며 (유명기, 2004), 또한 지리학적으로 이들은 일하는 장소와 자는 장소의 단 두 종류의 장소에서만 살아간다고 덧붙일 수 있다. 또한 최근 재구성된 신시간지리학의 관점은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초공간적 연계를 나타내는 시공간 확장의 다이어그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조창현, 2006).

본 연구에서 특히 강조하고 원용하고자 하는 점은 시간지리학이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시공간적 활동에서 작동하는 세 가지 유형의 제약, 즉 인간의 생리적 조건(수면, 식사 등)이나 도구(교통수단) 이용 능력에 따른 '능력제약', 다른 사람이나 도구, 물질 등과 연계, 어디서, 얼마나 오랫동안 결합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결합제약', 그리고 특정 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접근의 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권위제약' 을 개념화했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시공간적 행동에 대한 이러한 3가지 유형화를 원용하여 법제도나 권위와 권력에 의한 제도적 제약, 사람들 간 및 사람과 사물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상호행위적 제약, 그

리고 개인의 물질적(금전, 육체적 조건 등) 및 비물질적(지식, 의지 등) 능력에 따라 가해지는 개인적 제약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제약들은 때로 중첩되어 작동하기도 하며, 이들 모두는 보다 거시적인 구조적 제약(예로, 자본주의)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들의 유형화는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적 활동의 한계, 즉 '공간의 덫'(spatial trap)의 은유(정현주, 2007)를 가시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시공간적 활동은 이미 법적 제도에 의해 제약되며, 일터나 생활공간에서는 상호행위적 제약이나 개인적 능력 제약에 의해 심각하게 규정되고 있다. 특히 제도적 권위제약은 이들의 국내 이주 및 정착을 조건지우는 체류자격(즉 비자유형)에 따라 주어진다. 예로, 외국 인력의 연수와 기술이전을 명분으로 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 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면서, 일터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도록 조건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직을 금지함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여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주어질 직장을 임의적으로 이직하거나 비자 만료기간을 지나 체류할 경우, 이들은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되어 물리적 이동 자체가 제한되고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인

해 일정한 장소에 머물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2004년 이후 단순기능 인력의 합법적 도입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지만, 이와 같이 직장과 주거의 사회공간적 이전의 자유가 박탈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는 여전히 상당 수준에 달하고 있다.

2007년부터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방문취업제는 이들에게 단순 노동분야의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자유 입국과 왕래를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주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확장시키고, 이에 따라 이들의 공간적 활동 범위와 유형도 상당히 달라지도록 했다. 즉 방문취업제를 통한 자유입국과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은 이전에는 임시적 이주를 위한 목적국이었지만, 이제 한국은 일자리도 있고 가족과 친척이 다 사는 ‘현재적 장소’이며, 정주하고 싶은 장소”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김현미, 2009, 65). 이와 같이 방문취업제가 적용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법제도에 의한 권위계약이 상당정도 해소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여전히 일터나 생활공간에서 겪게 되는 상호행위적 결합계약과 개인적 능력의 한계로 인한 능력계약 하에 있다고 하겠다.

시간지리학은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삶의 공간성, 특히 일상생활의 시공간적 경로와 장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공간적 제약들을 개념화하고 설명하기 위해 유의한 도식적 틀과 개념들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지리학의 한계는 공간을 물리적 공간, 특히 이차원적으로 평탄한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면적 공간’ (phase space)(Jones, 2009)이나 ‘관계적 공간’ (relational space)의 개념과 더불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4가지 공간적 차원들, 즉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이 4가지 공간적 차원들은 사회공간적 관계들이 상호 구성적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제습 등(Jessop *et al.*, 2008)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이들은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전개되는 여러 사회공간적 과정들에 관한 연구를 위

한 기본 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구조화 원리로서의 4가지 공간적 요소와 작동의 장으로서 4가지 공간적 차원을 구분하여 상호교차시킨 행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공간적 관계의 일차원적 설명을 벗어나고자 한다. 박배균(2009)은 이러한 4가지 공간적 차원들을 상술하면서, 이들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한 공간적 관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가지 공간적 차원들 가운데, 장소는 일상적 생활과 경험이 체화된 곳으로, 사람들 간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는 위치, 현장, 장소감 등을 함의하며, 접근성 또는 이동성, 생활과 경험의 무대, 공간적 뿌리내림 등으로 표현된다. 이주노동자에게 장소는 주거공간이나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며, 장소에의 뿌리내림은 새로운 지역정체성을 가지도록 한다. 영역은 사람들(개인이나 집단)간 관계에서 공간을 구획하여 경계지우고, 그에 대한 통제권(소유권 포함)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사건, 사물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과정과 관련된다. 이주노동자들은 유입된 국가의 영토성에 근거한 이민정책에 의해 규정될 뿐만 아니라 임금을 대가로 판매된 노동력이라는 점에서 일터에서 자율성이 유보되고 사용자에 의해 통제되게 된다. 네트워크는 다양한 방식들(직접 상호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소통 등)에 의해 형성된 공간적 연계를 의미하며, 사람들 간 또는 사물들과의 관계성을 함의한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가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초국적 이주와 국지적 정착을 통해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정착한 이후에도 다양한 초국적/국지적 연결망을 유지·확장하고자 한다. 스케일은 사람들의 활동, 현상이나 과정, 관계가 발생하고 작동하는 지리적 범위를 뜻한다. 스케일은 지구적, 국가적, 국지적 범위 등 다양하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관계 등은 ‘다중스케일’ 과정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정착 과정에서도 다중스케일적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표 1. 4가지 공간적 차원의 개념과 상호관계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
장소	이주자들의 장소적 뿌리 내림	종족집거지(ethnic enclave) 형성과 지역적 차별화	이주·정착 관련 정보의 흐름과 연계망의 장소기반적 성격	이주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스케일적 (multi-scalar) 조건들
영역	권리(시민권 등)의 인정 등 탈규제에 의한 장소로의 환원	영역성에 근거한 권력의 행사 또는 규제의 강화	유출/유입 국가 또는 지역간 정치·경제적 권력 관계(송금 등)	영역성에 근거한 지구-지방적 이민정책 (비자, 불법체류 단속 등)
네트워크	국지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이주자들의 장소적 뿌리내림	특정 영역 내에서 작동하는 이주자 네트워크	네트워크에 기반한 연쇄 이주와 네트워크의 확충	초국가적 이주 네트워크의 발달과 국지화된 이주자 네트워크
스케일	초국가적 이주에 따른 장소 정착	지구적, 국가적, 지방적 규모에서의 힘의 상호작용	지구-국가-지방적으로 다중스케일화된 네트워크	다양한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힘의 동원을 통한 스케일의 재편

자료: Jessop *et al.*, 2008, 395; 박배균, 2009, 631 등을 참조하여 작성

사회공간에 적응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4가지 공간적 차원들을 초국적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에 관한 설명에 응용함에 있어,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 등은 상응한 특정 공간과 우선적으로 관련될 수 있지만, 고정된 실체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로, 국가 영토가 주권과 권리에 기초한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기업에서의 작업장(일터)도 역시 자본가 또는 그 대리인이 상품으로 판매된 노동력을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자에게 시민권이 부여되고 규제가 없어진다면 이주자들이 활동하는 생활공간은 영역에서 장소로 전환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작업장 내에서 동료들 간 대등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면 일터도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은 상호 전환(장소에서 영역으로, 또는 그 역으로)하거나 또는 상호 합의(장소들 간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의 장소기반적 속성)를 전제로 한 사회공간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들이다 (표 1 참조).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이

루어지는 활동들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이나 현상들을 이러한 4가지 공간적 차원과 관련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4가지 공간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부가되는 시공간적 제약들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사회공간적 관계들의 이러한 4가지 공간적 차원들과 더불어, 이러한 사회공간적 활동과 관계를 가능하게 또한 조건지우는 개인의 지리적 지식 및 장소 정체성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일터: 타자의 영역, 허구적 만족 의식

이주노동자에게 직장생활은 정착 이후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일터 자체는 이중적으로 타자의 영역이다. 즉 합법적 국가 영토에의 입국을 전제로 일터에의 접근이 허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일터는 자본가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작업장이고, 노동자들이 고

용자나 관리자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 노동을 하도록 규정된 규율의 공간이다. 이러한 일터는 이주노동자에게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직·간접적 억압이나 심지어 폭언·폭행을 감내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터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적, 즉 일정액의 임금과 그 외 약간의 부수효과들(예로 기술연수, 인적관계 구축, 언어교육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하는 영역적 공간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일터에 대해 아무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 관계,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가식적으로 만족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관한 문항에서 절반 정도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이 30% 이하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광주, 전남은 60%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국적별로는 필리핀인들이 57.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인은 40%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 체류자격으로 보면, 선원취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했으며, 업종별로는 화학물질 제품업의 종사자가 가장 큰 만족을 하고 있는 반면, 금속·비

금속가공업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별, 국적별, 취업업종별로 다소간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이주노동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관계나 조건, 상황들에 관해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의외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예로, '현재 일은 희망직종이다' 라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42.7%가 '그렇다' 또는 '아주 그렇다'고 답을 했다. 물론 '별로' 및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13.3%로 나타났다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대상 지역 모두에서 대체로 희망한 직종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었고, 국적별로는 필리핀인, 체류자격별로는 연수취업자가 본인 희망 직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설문 항목인 '현재 업무량은 감당할 수 있다'에 관해 응답자들 가운데 48.5%가 '그렇다' 이상을 답하였다. 광주와 전남지역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율을 보였지만, 국적별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체류자격별로는 연수취업 노동자의 64.5%가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여 다른 유형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내가 받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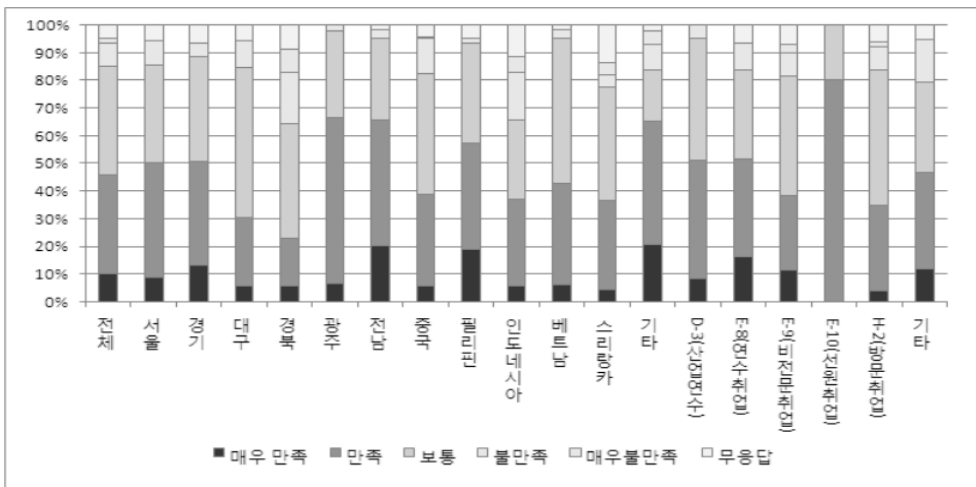


그림 2. 현재 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표 2. 직장생활에서의 구체적 상황에 관한 인식

	응답자(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현재 일은 희망 직종이다	346	9.2	33.5	41.6	10.7	2.6	2.3
현재 업무량은 감당할 수 있다	346	9.8	38.7	38.4	7.5	3.5	2.0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충분하다	346	9.2	31.5	40.2	12.1	5.2	1.7
직장동료와 친하게 지낸다	346	11.8	42.5	39.9	4.0	0.6	1.2
직장을 옮기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다	346	8.7	30.3	39.6	15.0	4.3	2.0

분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7%가 '그렇다' 이상의 답을 보였으며,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은 업무량과 관련된 항목과 유사한 유형을 보였다.

또한 '직장에 소속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 질문에서 서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그렇다' 이상을 응답한 비율이 79.4%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인이 다른 국적 노동자보다 친분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체류자격별로는 연수취업 노동자의 67.8%가 그렇다 이상을 응답하여 다른 업종 종사자들(선원취업 제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직장을 옮기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상을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9.0%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 이상을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9.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³⁾ 대구와 경북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직장을 옮길 생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적별로는 특히 인도네시아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들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장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는' 비율이 낮았다. 또한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의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직장을 옮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두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직장 옮기기에 있어 좀 더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물론 실제 이주노동자들의 만족 의식이나 긍정적 인식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신 국적이나 비자 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일단 초국가적 이주를 결심하고, 본국의 고향을 떠나 국내 작업장에 유입될 때에는 이미 그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제약들을 예상하고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만족하고자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업무량은 감당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제 이들은 하루에 수면과 식사, 이동시간 등(즉 개인적 능력제약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노동에 투입한다. 즉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 가운데 43.0%는 주당 70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특히 서울지역이 70시간 이상 노동하는 비율이 52.9%로 가장 높았고, 체류자격별로는 서울에 많이 밀집해 있는 방문취업자 가운데 주당 70시간 이상 노동하는 비율이 51%로 높게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인의 42.9%가 7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출판, 금속, 고무관련 업종의 이주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절대적으로 길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비교(2006년 기준 주당 총 근무시간은 45.25시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시간의 문제는 이주노동자들 도 대체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이 긴 노동시간은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임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표 3. 이주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응답자(명)	39시간 이하	40시간~ 49시간 이하	50시간~ 59시간 이하	60시간~ 69시간 이하	70시간 이상	무응답
지역	합계*	237	4.6	27.4	6.3	22.4	43.0	3.4
	서울	34	8.8	20.6	8.8	8.8	52.9	0.0
	경기	61	8.2	29.5	1.6	18.0	39.3	3.3
	대구	72	2.8	15.3	6.9	33.3	37.5	4.2
	경북	70	1.4	17.1	8.6	21.4	47.1	4.3
비자 유형	비전문취업	97	0.0	22.7	13.4	20.6	37.1	6.2
	방문취업	49	2.0	20.4	8.2	18.4	51.0	0.0

주: * 광주 및 전남지역에서 무응답자가 각각 77.8%, 35.9%로 나타나 집계에서 제외함. 또한 비자유형별로 산업연수, 연수취업, 선원 취업에서 무응답자가 47.6%, 25.8%, 50.0%로 나타나 제외함.

서 오히려 선호될 수도 있다. 물론 지나치게 긴 노동 시간이나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의식을 갖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더 큰 어려움은 일터에서 이들이 담당하는 역할과 사용자 또는 관리인과의 관계,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업종은 사회적으로 차별 받는 이른바 3D업종일 뿐만 아니라, 작업장 내에서도 이들이 담당하는 역할은 항상 주변적이다. 이들은 누군가가 해야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서 하기를 싫어하는 일들을 담당한다. 이들은 일터에서 같은 동료들과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원한 신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들과나 특히 관리자들로부터 명령과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다(유명기, 2005).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일터의 작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지만, 참을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심층사례 자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사례 1] 베트남 국적, 36세 여성, 2000년 산업연 구생으로 입국, 미등록 체류, 구미 섬유공장 근무, 주당 평균노동시간 72시간(하루 12시간, 6일 근무), 월임금 110만원 정도

“현재 직장 동료들과는 잘 지낸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월급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한국인들에 비해 월급은 비

슷하지만, 일하는 시간은 훨씬 더 많다. 사장이 때 로 겁을 줄 때는, 나도 같은 사람인데, 나 때문에 돈을 벌면서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때문에 속상하기도 한다. 일은 능숙하게 잘 하지만, 작업장 환경은 좋지 못하다. 덥고, 너무 시끄러워 머리가 아프기도 한다.”

[사례 2] 몽골 국적, 26세 남성, 2005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 현재 미등록 체류, 대구 성 서공단 내 이불공장 근무, 주당 노동시간 75시간(하루 12-13시간 6일 근무), 월임금 150만원 정도
“직장에서 사장님은 안 좋다. 돈 적게 주고, 밥 한 끼 안 준다. 동료들은 괜찮다. 하는 일은 쉽고, 노동 시간은 적당하다. 돈 적게 주는 것만 문제이지, 다른 것은 괜찮다. 그런데 기계가 노후하여, 고장이 자주 난다. 주변 환경은 좋지만, 직장 내 작업 환경은 나쁘다. 솜공장이라서 공기가 나쁘다. 작업장 내 위험성은 별로 없고, 본래 주물공장에서 일하고 싶 었으나 솜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불법체류라서 일 을 바꾸는 것보다 그냥 이 직장에 계속 있을 생각이 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일터는 다양한 층 위의 통제력이 작동하는 타자의 영역이다. 가장 높은 층위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작동한다. 즉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임금을 대가로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통

체력을 박탈당하며, 노동의 생산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된다. 또한 입국 당시 그리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서 변하게 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조건은 직장 선정과 이전에 관한 이들의 법적 지위를 규제하는 제도적 제약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고용주와 동료들의 명령이나 지시(심지어 폭언이나 폭행)는 상호작용적 제약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열악한 작업환경은 이주노동자의 생리적 조건과 신체적 특성과 관련된 심각한 개인적 제약을 부가한다.

이러한 제약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우선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은 직장을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이직의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직은 일터의 억압적 제약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나 한국인 직장상사가 여권 보관을 강제할 경우, 이직뿐만 아니라 일상적 공간 이동 자체에 제약을 받게 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가운데 74%가 본인이 여권을 소지한다고 응답했지만, 사업주 또는 한국인 직장 상사가 보관하는 경우가 각각 15.6%, 4.3%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약간의 부수효과를 얻기 위하여 일터의 전반적 상황이나 구체적인 여건들에 대해 가식적 또는 자기 타협적으로 만족하고 긍정 하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조건지워진다⁴⁾. 이렇게 왜곡되어 표현되는 만족 의식이나 긍정적 인식은 다중스케일적 제약들에 의한 규정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거나 참는 경우가 36.7%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인 직장동료나 이주노동자 직장동료들과 상담하는 경우가 각각 17.1%, 16.2%로 나타났으며, 지원단체 관련자와 상담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일상생활의 공간: 생존을 위한 공간, 뿌리내리지 못한 장소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대부분 일터에서의 노동시간과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들에게 있어 생활공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주거와 소비 그리고 약간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이며,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애착과 의미가 부여되는 장소가 된다. 주거공간은 이들의 생존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잠자고 밥먹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이다. 즉 “[주거]공간은 한 달에 2,3일 쉬는 날 와서 ‘실컷 잠을 자는’ 휴식의 공간이며, ‘아무 방해 없이’ 자유를 누리는 자기만의 공간이다”(김현미, 2009, 57).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주거공간은 상호행위적 결합계약으로부터 벗어나서 혼자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소비(구매)공간은 식사가 제공되는 기숙사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취사를 해야 할 경우 필요한 식료품의 구입과 그 외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약간의 여가시간에 이들은 친구를 만나거나 종교 또는 지원 단체를 방문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의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제한된다.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와 유사한 이유로 생활공간에 대해 다소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만, 일터에 비해 그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즉 설문조사에 의하면(그림 3), 지역사회 생활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불편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53%로 높았지만, ‘다소’ 또는 ‘매우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2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지역별로는 전남지역, 국적별로는 필리핀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입국연도에서는 오히려 오래 거주한 이주노동자일수록 최근에 입국한 노동자보다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재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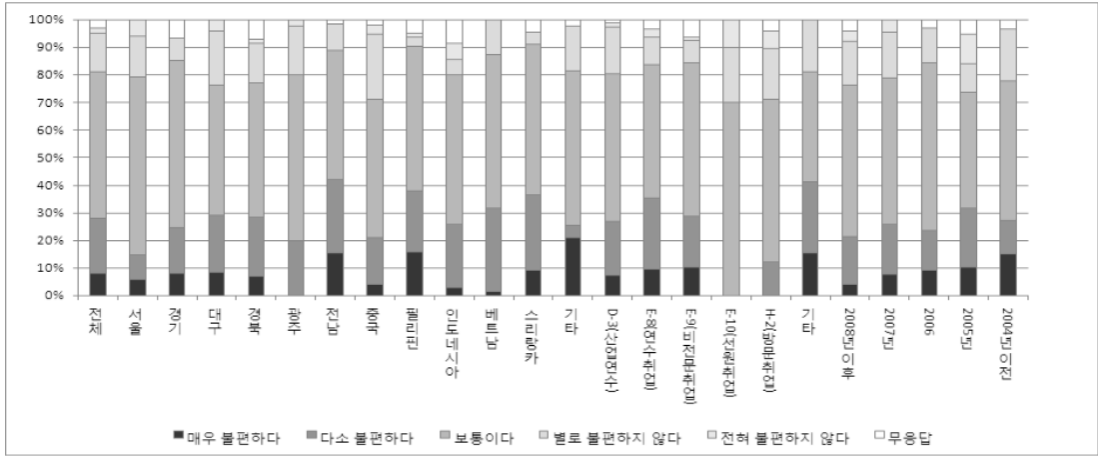


그림 3.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불편한 정도

동포들로 주로 구성되는 방문취업자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지역사회 적응에 있어서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 생활의 구체적 사항들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들은 대체로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예로 기후 및 자연환경에 대해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지역 이주노동자들은 79.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표 4). 비자유형별로는 산업연수와 연수취업 이주노동자가,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과 광주, 전남지역 응답자들은 60% 이상이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인의 절반이상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적응 또한 기후 및 자연환경과 마찬가지로 산업연수와 연수취업 노동자의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비 및 여가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적응도는 약간 떨어지고, 특히 대구 지역 응답자가 다소 저조한 적응을 보였고, 국적별로는 중국과 베트남인의 절반 이상이 높은 적응을 보였다. 행정 및 의료기관 이용은 다소 더 낮은 적응도를 보였다. 전남과 광주지역 응답자가 다른 지역보다 적응도 높았고, 국적별로 행정 이용에 있어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인이, 의료이용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인이, 그리고 비자유형별로는 산업연수와 연수취업생들이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나 행정기관 등 사회적 서비스의 이용에서는 적응도가 낮은 것은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 미등록(불법체류) 신분 자체, 그리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제약(예로, 의료보험 미가입 등) 등 이주노동자의 상황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 생활에서 이들의 공간적 적응과 이용의 정도는 이 보다는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로 설문조사의 응답자들 가운데 58.7%가 기숙사 또는 직장이 주선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거의 입지나 내부 공간의 선택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특히 주거비를 감안할 더욱 그러하다. 즉 설문조사에서, 월평균 주거비용은 기숙사 거주자가 많아서 ‘직장에서 전액 제공’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기숙사를 제공하더라도 주거비를 전액 부담하지 않아 10만원 미만과 10~20만원 정도의 주거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 응답자들은 30만원 이상의 주거비를 지불하는 비율이 29.4%와 16.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중국 이주노동자들도 30만원 이

표 4. 지역사회 생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적응 정도

	응답자(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기후 및 자연환경에 잘 적응함	346	16.2	48.0	31.5	3.5	0.3	0.6
주거시설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함	346	9.2	46.2	38.7	4.0	0.9	0.9
소비·여가시설 이용에 어려움 없음	346	11.8	39.0	38.7	6.9	2.0	1.4
행정기관 이용 어려움 없음	346	9.8	31.8	38.7	13.3	3.8	2.6
의료기관 이용 어려움 없음	346	12.1	32.9	36.7	11.8	4.3	2.0

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체류기간이 길수록 주거비용은 증가하였고, 나이가 많을수록 주거비용도 증가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소비공간도 시공간적으로 매우 제한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절반은 집주변 슈퍼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필품은 1주일에 한번 정도 구입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1.3%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한 달에 한번 구입한다는 경우가 전체의 33.3%나 되었다. 월평균 생활비는 절반이상이 10~30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대구지역은 타지역보다 많은 생활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스리랑카 노동자가 가장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 취업자는 다른 유형보다 생활비를 많이 쓰고, 연령대로는 4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많이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주거공간이나 소비공간에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생활공간에 머물 수 있는 여가시간 자체가 거의 없고, 여가시간에도 이동하는 범위나 방문 장소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즉 주당 평균여가시간에 관한 문항에서,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23.4%가 가장 많았고, 이를 포함하여 67.9%가 10시간 이내의 여가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응답했다. 서울과 대구, 경북이 다른 지역보다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그 시간은 적었다. 인도네시아인의 여가시간이 가장 낮았고, 중국 노동자들이 다른 국적에 비해서는 높았다. 비자유형별로는 산업연수나 연수취업의 경우, 절반이상이 5시간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이들은 여가시간에 TV를 시청하거나 청소하기, 인터넷 이용 등으로 이용했으며, 외출을 할 경우에는 집주변을 서성거리거나(27%) 시장·마트에서 생필품 구입하기(23%), 또는 종교단체(24%)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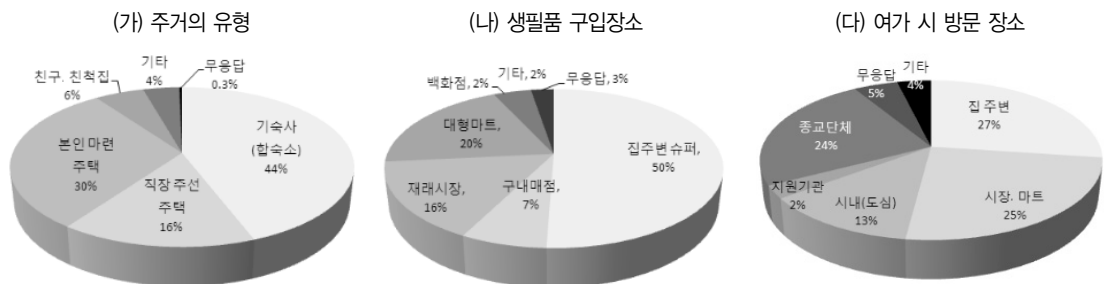


그림 4. 이주노동자의 생활공간: 주거, 소비, 여가공간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적 제약들은 다음과 같은 심층면접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사례 1과 같음]

“평일에는 하루 종일 일해야 하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간다. 저녁시간에는 인터넷하고 공부도 좀 하고, 피곤해서 그냥 잔다. 토요일 저녁에는 간혹 모임이 있는데 불편하지만 친구 집에서 만나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와 3시경 돌아가면서 시장을 본다. 동네를 벗어나서 다니기가 어렵다. 기숙사에서 30분 걸려 시장을 가는데, 베트남은 따뜻한 데 한국 겨울은 너무 춥다. 베트남에 있는 집은 크고, 나무집이지만 방이 3개이고 화장실도 다 있다. 여기 기숙사는 너무 안 좋다.”

이주노동자의 시간지리는 평일에는 일터와 주거공간을 오가는 반복으로 이루어지고,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하루 여가시간을 가지며, 이 때 친구만나기, 종교생활, 시장가기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시공간에서도 날씨와 같은 자연환경이나 방의 수나 크기로 인해 제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을 장소로 인식하고 뿌리를 내리기에는 근본적으로 제약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웃주민과의 관계는 평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적응도가 가장 높은 사항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지만 이것 또한 보통 정도이고, 이웃의 경조사 참석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지역사회에 이웃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저 인사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사회 적응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직장에서의 마찬가지로 ‘혼자 참는’ 경우가 31.2%로 가장 높았고, 지원단체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10.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지역 이주노동자들이 혼자 참는 경우가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도 그러했다. 연수취업 이주노동자의 58.1%는 혼자 참고 있었지만 비전문취업의 경우 직접항의 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사회 생활을 통해 이웃관계를 형성하고 장소에 뿌리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은 우선 지역주민들과 만날 기회가 없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피부나 외모, 언어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실제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재중동포(조선족)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 심층면접의 사례는 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례 3] 중국 국적 동포, 41세 남성, 1999년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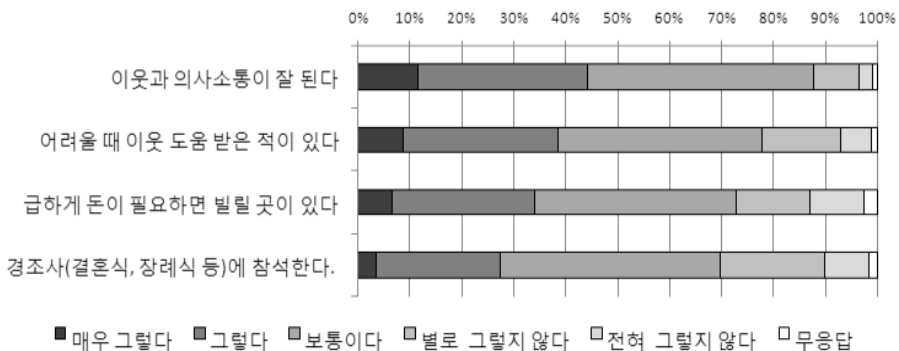


그림 5.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

국, 한국에 동거 부인과 자녀 2명, 대구 북구 소재 도금공장 취업, 노동시간 주 평균 60시간, 월 임금 130만원 정도

“조선족으로, 의사소통에는 거의 문제가 없고, 문화적 차이도 별로 느끼지 못한다. 현재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 의료비 부담으로, 특히 약국에서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약값이 다른 사람들보다 3배 정도 비싸다. 생활비 가운데 50%는 의료비로 나가기도 한다. 여러 가지 차별 대우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참을 만하다. 외출은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가는 정도이고, 이동상 별 어려움은 없다. 한국에 대한 인상은 다소 좋아지긴 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생활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다. 이웃들과 인사하는 정도이고, 주민들과 마찰은 없다. 중국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알면 대우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특별히 이웃과 함께 하는 어떤 모임에는 나가지 않고, 회사사람들 결혼식에는 가 보았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로서의 신분 자체와 다른 제도적 조건들에서 받는 차별적 제약은 일상생활 전반에 스트레스를 주고, 이웃주민과의 관계를 제약하며, 결국 생활공간에서의 장소 뿌리내리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

5. 네트워크의 구축과 스케일의 정치의 한계

이주노동자의 삶에 함의된 공간적 특성은 전통적 의미의 장소나 영역뿐만 아니라 최근 지리학에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네트워크와 스케일의 개념을 통해 잘 드러나게 된다. 행위자들 간 또는 행위자와 사건이나 사물들 간 연결되는 네트워크는 사회적이며 또한 공간적인 것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정보나 화폐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성 능력은 개인의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네트워크의 연결성은 네트워크 상의 행위자들의 사회공간적 의식이나 행동, 나아가 이들과 관련된 장소나 영역의 구성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회공간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확장시켜 자신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양 지역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때로 이주노동자들이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마치 모든 제약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나 수단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도록 한다. 즉 네트워크(사회)라는 용어는 영역적 지배나 장소의 불연속성을 모호하게 하거나(Fuchs, 2007),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성이 혼성적이고 초국가적인 정체성의 형성을 정당화시키고, 탈주(또는 탈영토화)에 의존함으로써 장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류사회의 탄압에 더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은폐할 수도 있다(정현주, 2008).

이러한 네트워크의 개념은 논리적으로 스케일의 개념과 짝을 이루게 된다. 지역 내 그리고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한 탈지역적, 초국가적 네트워크는 다양한 스케일을 구성한다. 장소나 영역의 차원이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공간적 차별화와 주로 관련되며, 이들 간 연계성을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상이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과정들은 수직적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배균, 2009). 즉 사회공간적 연계성은 거시적 스케일뿐만 아니라 미시적 스케일에서도 형성되며, 따라서 네트워크는 장소나 영역의 경계를 횡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케일을 가로질러 다중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장거리 전화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은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구성과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사회공간적 관계 속에 함의된 이러한 네트워크와 스케일의 고찰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장소와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그 곳에서 주어지는 제약들을 극복하고자 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이주노동자들은 새로운 일터와 생활공간에 정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스케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나아가 이러한 네트워크와 스케일의 창출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정보와 기회를 만들어 내거나 가용자원을 교류하는 활동, 즉 ‘스케일의 정치’를 하고자 한다(정현주, 2008). 그러나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이러한 스케일의 정치는 대부분 매우 제한적이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실천이 이들에게 주어진 제약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겪게 되는 제약들을 극복하거나 완화하고 자신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스케일의 네트워크 구축에서 우선, 국지적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한국인과의 모임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정착생활에 지원을 해주는 사회지원단체 모임(26.9%)뿐만 아니라, 자국민 모임(21.1%)이나 외국인 친구모임(12.7%), 동일직종의 모임(6.1%)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단체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2.8%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사회지원단체 모임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필리핀과 스리랑카 노동자는 사회지원단체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고, 베트남 노동자는 자국민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연수취업생 중 45.2%는 외국인 이주자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반면, 비전문취업 노동자들은 전체의 88.7%가 여러 유형의 모임에 참여하며 그 중에서도 사회지원단체 모임에 참석하는 비율은 4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모임 참여와 이를 통해 구성된 연결망을 이용하여, 국지적 제약 속에서 발생하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면서 때로 일터나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제약들(예로, 임금체불 문제, 집구하기 등)을 해결하는데 직접 도움을 얻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지역 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친구를 유지하고 필요한 정보의 획득이나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 역외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직접 이동보다는 주로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과 정보 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 가운데 일년 평균 다른 지역 방문의 횟수에서, ‘없다’가 43.9%를 보이고, 2회 이하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경북지역 응답자, 국적별로는 필리핀인, 그리고 비자유형별로는 비전문취업의 타 지역 방문 회수가 다른 유형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지역 방문 목적은 가족·친구방문, 본국사람들과의 모임, 종교 활동 순이었다. 특히 대구와 경기는 종교활동 관련 방문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국과 필리핀 또한 그러했으며, 대체로 체류기간이 길수록 본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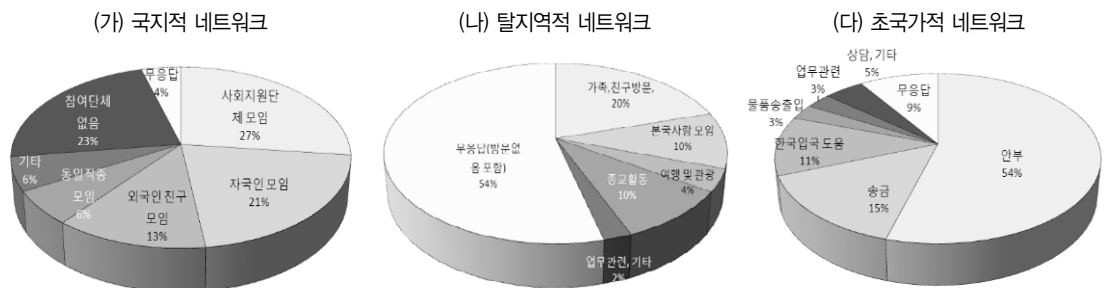


그림 6. 이주노동자의 다중적 네트워크 구성 목적

표 5. 한국 내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 참여

다른 지역 방문 회수와 목적				다른 지역에 연락하는 사람			
방문회수(연평균)		방문목적		연락 사람 수		연락목적	
응답자수	346	응답자수	346	응답자수	346	안부 및 친교	43.4
방문 없음	43.9	가족, 친구방문	20.2	없음	25.4	한국생활 정보 교류	9.0
2회 이하	29.8	본국사람 모임	10.1	1-2명	28.6	본국관련 정보 교류	4.3
3-5회	11.0	여행 및 관광	4.0	3-5명	18.8	상담이나 대화	4.0
6-9회	6.9	종교활동	9.5	6-9명	10.1	종교모임, 사회활동	3.8
10회 이상	0.0	업무관련, 기타	2.3	10명 이상	15.6	업무 관련, 기타	4.9
무응답	8.4	무응답	53.8	무응답	1.4	무응답	30.6

람들과의 모임을 위한 방문이 많아졌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직접 방문을 통한 네트워크의 구성 외에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역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계를 맺기도 한다. 한국 내에서 연락할 역외 거주자들이 전혀 없는 사람도 25%를 넘지만, 절반 정도가 1-5명, 그리고 25% 넘는 사람이 6명 이상과 연락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지역과의 연락 목적은 대부분 안부 및 친교 목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다양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도 노동자들은 '안부 및 친교'가 60%를 넘었고, 반면 대구, 경북, 광주 지역의 지방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정보교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의 경우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정보교류가 높게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이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들 가운데 본국과 연계된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가장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약 30%가 거의 매일 또는 3일에 한번 정도, 또 다른 30%는 1주일에 한번 정도 본국과 연락을 하고 있으며,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국과의 연락목적은 안부가 가장 많고, 송금, 한국입국 돕기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의 중국국적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지역 응답자들은 82.4%가 안부 목적이었고,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안부 목적이 높았으며, 필리핀과 스리랑카

인의 경우 한국입국 돕기가 다른 국적 노동자들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락은 주로 인터넷과 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것이며, 직접 본국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즉 설문조사에서, 한국 이주 이후 본국 방문 횟수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4%는 없다고 답했으며,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취업 후 본국 방문이 거의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월평균 100-120만원 정도 받는 임금 가운데,⁵⁾ 상당 부분을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전혀 송금을 하지 않는 응답자도 18.5%를 차지했지만, 250만원 미만 송금이 23.7%, 25-500만원 송금이 21.7%를 차지했고, 1000만원 이상 송금자도 9%에 달했다. 특히 대구, 경북의 이주노동자, 그리고 방문취업노동자의 송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송금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이주노동자 자신이 미등록 체류상태인 경우는 본인 통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본국 친구의 통장을 사용하거나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대구, 경북의 노동자, 스리랑카출신 노동자, 비전문취업과 산업연수로 입국한 노동자들이 한국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체류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의존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본국의 동료들을 국내 취업을 알선한 경우에 관한 조사로, 응답자들 가운데 54%가 없으며, 33.5%의 응답자들은 1-2회 알선한

표 6. 본국과의 네트워크 참여

본국과의 연락 빈도와 주요 목적				본국 송금 금액(연평균)		한국취업 알선 경험		본국방문 회수(입국 후)	
연락빈도		주요 목적							
응답자수	346	응답자수	346	응답자수	346	응답자수	346	응답자수	346
거의 매일	14.5	안부	54.3	하지 않음	18.5	없다	38.4	없다	54.0
3일에 한번	15.0	송금	14.7	250만원 미만	23.7	1-2번	32.4	1-2회	33.5
1주일 한번	29.8	한국입국 도움	11.3	250-500만원	21.7	3-5번	15.9	3-5회	6.4
2주일 한번	19.7	물품송출입	2.9	500-750만원	13.6	6-9번	3.8	6-9회	3.5
한달 한번	17.1	업무관련, 기타	2.9	750-1000만원	10.1	10번 이상	9.0	10회 이상	2.0
무응답	4.0	상담, 기타	4.6	1000만원 이상	9.0	무응답	0.6	무응답	0.6
-	-	무응답	9.2	무응답	3.5	-	-	-	-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이주노동자의 국지적, 탈지역적,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구성과 이러한 공간적 네트워크와 함께 이들이 구성하는 다중스케일에 관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사례 1과 같음]

“주변사람과 인사할 정도로 지낸다. 나는 대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을 만날 기회는 많지 않다. 친하게 지내는 한국 사람이 한명 있는데, 회사사람으로 집 근처에 같이 살고 한 달에 한번 정도 목욕을 같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국 사람들과 같이 지내기가 불편할 것 같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하는 모임은 잘 모르고, 있어도 가기 싫다. 몽골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다. 성서에 있는 몽골식당에서 만나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간다. 50명 정도가 모인다. 다른 국적 사람들은 잘 모른다. 어려운 일은 친구하고 상의한다. 대구 시내를 자주 가는 편이고, 서울이나 인천에도 친구 만나러 간혹 간다. 특히 추석, 휴가, 설날 때 간다. 한국에 온 이후 고향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고향에서는 추석과 설날에 2번 가족이 와서 1-2주 머물다가 갔다. 고향에 있는 가족과 하루에 한번 전화를 할 정도로 자주하는 편이고, 폰 요금이 30만원이나 나올 때가 있었다. 보고 싶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한

다. 송금은 월 20-50만원 정도 한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시공간적으로 매우 폐쇄적이지만, 다중스케일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폐쇄된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하게 된다. 즉 이들은 회사동료나 인근 주민 또는 이주자 지원단체에서 알게 된 한국인 몇 명과 관계를 가지지만 이 관계는 제한적이고 약하며, 대신 자국민들과 일터나 주거지 인근의 집합장소 또는 지원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간에서 만나서 취업 및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다. 또한 이들은 휴일이나 명절에 본국 동료를 찾아 장거리 여행을 함으로써 연결망을 구성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현실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자신이 경험한 제도적, 사회관계적 제약들(예로, 불법취업, 직장 내 차별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본국 가족들과의 연계를 통해 안부 문의와 송금, 고향 친지의 한국 취업이나 방문 돕기 등을 위한 초국가적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외국인 이주자들에 관한 연구들은 흔히 이와 같은 공간적 네트워크와 스케일에 관심을 두고, 이들의 유형이나 구성 방식과 배경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공간적 네트워크와 다중스케일의 구성을 국지적 제약이나 억압을 벗어날 수 있는 탈영토적 전략 또는 스케일의 정치로 강조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다중스케일적 네트워크

는 분명 이들이 처한 국지적 상황들의 제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성과 스케일의 정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기간은 입국과정에서부터 제한되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정해진 일터를 이전할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또한 주어진 일터나 생활공간에서 이들은 다양한 유형의 외적 제약과 더불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물리적 공간상의 이동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다중 스케일의 네트워크들은 이러한 제약이나 제한으로 살아남기 위한 수동적 전략이며,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공간적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스케일의 정치가 마치 이들의 문제를 상당히 해소해 줄 것처럼 과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 지리적 지식의 한계와 교란된 정체성

공간적 이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조직하는 기초가 되며 사회공간적 적응 과정과 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직,간접적 능력이 된다. 물리적 공간의 이동은 특정 지점이나 사건, 사물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즉 접근성과 관련되지만, 이러한 접근성은 개인적 이동능력이나 수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제나 권력에 의한 제약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지리적 지식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나 외적 환경에 대한 객관적 지식뿐만 아니라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에 대한 인지능력과 상상력을 포함하며, 나아가 사회공간적 권력관계 지형도를 드러내는 단초가 된다(정현주, 2007, 53). 또한 지리적 지식은 장소나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감정, 즉 장소감과 환경적 안전감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리적 지식은 자신의 신체와 생활이 국지적으로 어디에 위치지워져 있으며, 나아가 탈지역적, 초국가적으로 어떻게 다중스케일적 네트워크를 구성

해야 할 것인가를 상상하고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지리적 지식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시공간적 체험을 통해 형성되거나 또는 간접적인 지리적 학습활동을 통해 형성된다.

이와 같이 '지리적 지식'의 개념은 공간적 이동성이나 접근성과 관련된 개인적 이동의 능력과 편의성, 이동의 자유와 제약, 그리고 장소감과 환경적 안전감, 그리고 다중스케일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리적 상상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 특히 이동성이나 접근성과 관련된 물리적 시공간상의 자유/제약은 시간지리학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일상생활 공간에 관한 심상지도의 분석으로 통해서도 공간적 상상력과 물리적 이동성의 상호관련성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에 관한 연구에서 흔히 논의되는 정체성의 문제는 대부분 국가적 정체성으로 이해되지만, 실제 이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역적 정체성이라고 하겠다. 지역정체성이란 살아가는 장소나 지역에 대한 공유된 의식이나 의미와 관련되며, 개인의 삶 속에서 동일화를 통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느끼도록 한다(최병두, 2008). 오늘날 한 개인이나 집단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공간적 관계(즉 네트워크)가 복잡하고 다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혼종적, 다중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공간적 관계가 복잡하고 빈번하게 변할수록, 사람들이 가지는 정체성은 교란되고 불안정해 질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지식과 정체성과 관련하여,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한정적이고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 가운데 지리적 이동에 있어 외적 제약이 '전혀' 또는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1.5%, 24.3%였고, 나머지 응답자의 대부분도 '다소 제약이 있지만 무시할 정도다'라고 답했다. 이주노동자의 지리적 이동을 위한 지식을 직접 묻는 또 다른 항목에서도, '어디든 지도만 있으면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9.2%, 그리고 ‘지역 내에서는 대체로 자유롭게 이동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3.4%로 나타났고, 특히 이러한 지리적 지식의 확보 정도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 노동자,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노동자, 그리고 해외 동포로 이루어진 방문취업 노동자들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일반적 추정과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이 지리적 이동의 외적 제약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경험을 통한 지리적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이동에 전제가 되는 한국어 사용이 어렵고 문화와 환경도 이질적이며, 특히 미등록자의 경우 제도적으로도 이동이 제한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이 지리적 이동에 외적 제약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지리적 이동 자체가 실제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일상적 제약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가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지리적 지식의 한계는 이들이 드러낸 삼상도의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심층면접에서 조사된 이들의 삼상도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유형은 자신의 주거지나 일

터 주변에 어떤 시설이나 사물들이 공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상태를 나타내는 심상도로, 사회공간적 관계가 매우 제한적인 여성들에서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은 약간의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만 직장과 주거지를 이동축으로 단선적 이동로를 중심으로 표현한 심상도로, 체류기간이 짧은 사람들에서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형은 도로망을 다소 체계적으로 표현하면서 주변의 주요 지형지물을 표기한 심상도로, 입국연도가 오래되고, 한국어 구사능력이 높고, 가족생활을 하는 사람들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삼상도의 특성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층면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사례 4] 몽골 출신 24세 여성, 기혼, 본국에 아기, 부모. 2007년 남편과 입국, 숙박업소에서 청소일 “시내에 친구랑 옷 사러 가기도 한다. 이동하는데 별로 힘든 것 없다. 버스 타는 게 재미있다. 약도는 잘 못 그리겠고, 그냥 버스 564번 타고 가서 내린다. 고향 마을과 다른 점은 아파르다. 여기서는 아파트가 너무 많다. 버스도 많고, 시장도 많다.”

이와 같이 공간적 이동성과 지리적 지식의 정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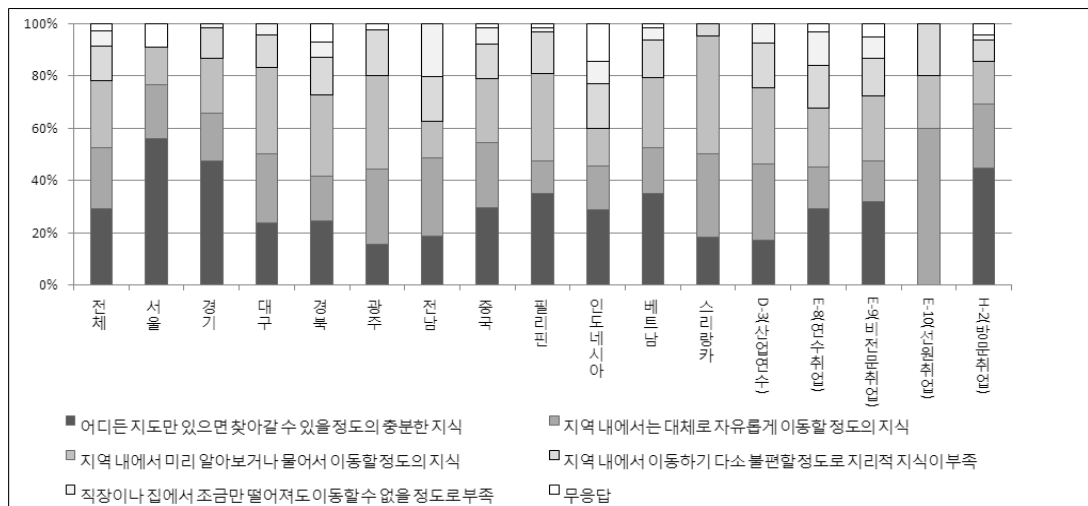


그림 7. 지리적 이동을 위한 지식의 정도

나타내는 심상도의 유형은 이주노동자의 개인적 조건들(즉, 성별, 결혼여부 등)과 우선 관련되며, 이에 따른 지리적 지식과 상상력의 한계는 이들의 실제 이동성을 제한하고, 이동성의 제한은 지리적 경험의 부족으로 이어져 지리적 지식의 한계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심상도 분석과 더불어 구체적인 대중교통 노선이나 특정 지형지물들에 관한 설문 항목 분석이 병행되었는데, 응답자들은 대중교통의 노선이나 시장이나 마트 등의 위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그렇다’ 이상이 각각 49.1%, 45.7%)를 나타냈지만, 이들의 생활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학교나 행정기관의 위치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도(‘그렇다’ 이상이 각각 32.1%, 31.8%)를 보였다. 지리적 정보의 획득 방법에 있어서는 응답자들의 37.3%가 TV나 인터넷 또는 지도를 주요 수단이라고 응답했지만, 그 다음으로 20.5%의 응답자가 ‘같은 출신국 친구를 통해’, 18.5%는 직접 경험을 통해 얻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원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리적 지식을 얻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5.5%에 불과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지리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리적 지식의 부족은 이주노동자들의 지리적 이동과 사회공간적 연계성을 제한할 뿐만 아

니라 이에 따른 지역적 정체성 나아가 국가적 정체성의 형성을 교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 가운데 지역주민으로서 정체성을 ‘항상’ 또는 ‘자주’ 느끼는 사람은 각각 7.8%, 9.2% 정도에 불과하고, ‘별로’ 또는 ‘전혀’ 없다고 느끼는 비율이 각각 26.9%, 25.4%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수취업과 선원취업은 지역주민이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은 가끔 느끼는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주민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한국어의 구사 능력과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느끼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이들에 대한 제한된 체류자격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의 자치단체로부터 특정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 즉 제도적 제약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이들은 일터나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공간적 관계에서 차별화되고 억압되기 때문, 즉 사회공간적 관계에 의한 제약이나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들은 시간 자체의 부족과 더불어 지리적 지식의 부족으로 이동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장소에 뿌리내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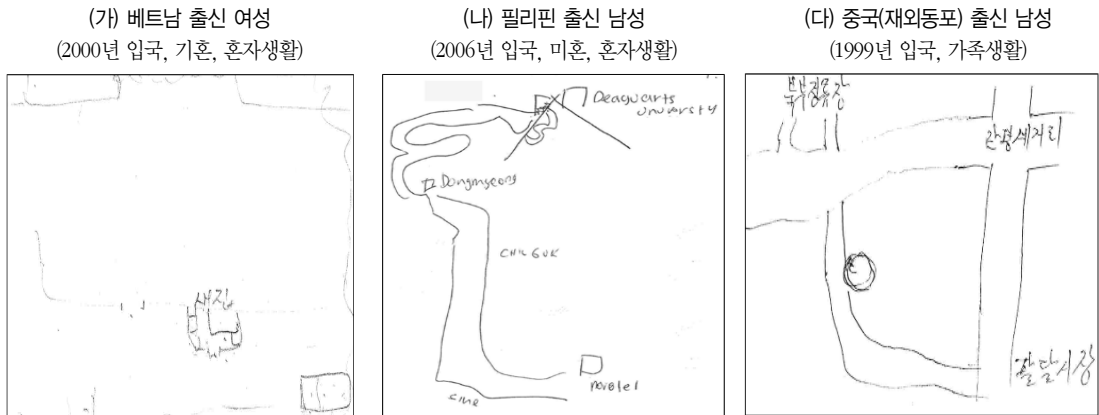


그림 8. 이주노동자의 심상도

못함으로써 귀속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과 관련된 몇 가지 추가적 질문에서는, 우선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계속 살고 싶다'는 점에 대해 응답자의 42.2%가 '그렇다' 이상의 답을 했지만,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애착을 느낀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상 답한 비율이 37% 정도로 다소 떨어졌다. 지역에 대한 애착 정도는 한국 사람에 대한 애착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이 비슷하게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이 주어진다면 원래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는 비율이 더 떨어져 33.5%만이 '그렇다' 이상의 답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설령 한국 국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본국적인 포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직접적 질문항목들에 대한 응답, 즉 한국에 살게 된 것에 대해 상당히 높은 자부심(즉, '그렇다' 이상이 54.2%)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보다도 본국에 대한 자부심이 더 높게 나타내었다(즉, '그렇다' 이상이 64.8%).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순환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계속 살고 싶고, 한국에 살게 된 것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나 한국 사람에 크게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본국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사례 4와 같음]

“나는 이 동네주민이라고 생각한다.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다. 같이 잘 안 어울린다. 몽골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일 안하는데, 여기 아줌마들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별로 어울릴 시간이 없다. 앞으로도 어울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같이 하는 모임에 참여한 적도 없다. 친하게 지내는 한국 사람은 없다. 한국 사람과 몽골 사람은 같다고 생각한다. 특히 얼굴은 같고, 옷을 보고 구별한다. 몽골에서 온 친구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전화로 연락하고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한다.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들어온 친구랑 주로 이야기한다. …… 나는 몽골사람이다. 한국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비자 기간을 늘려주면 좋겠고, 그저 가족 같이 대해 주면 좋겠다. 그 외 별로 바라는 것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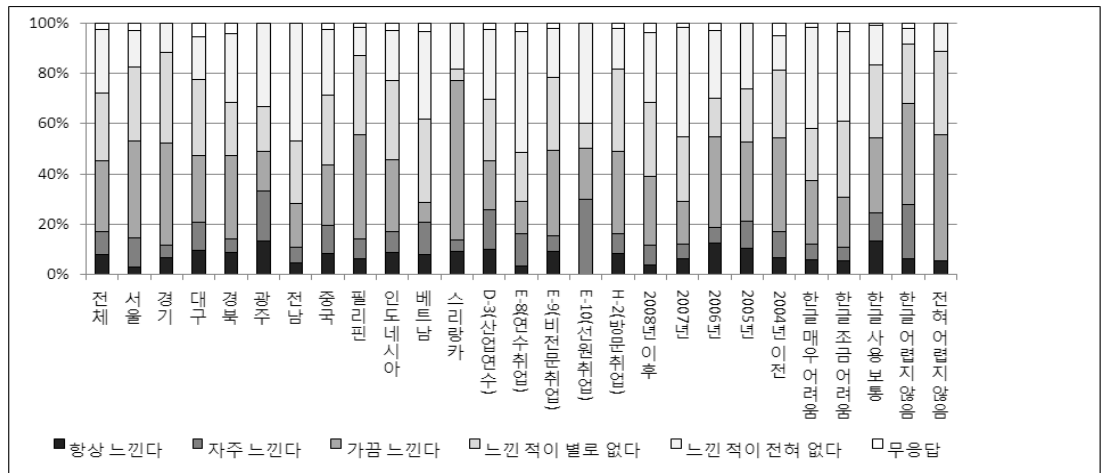


그림 9. 이주노동자의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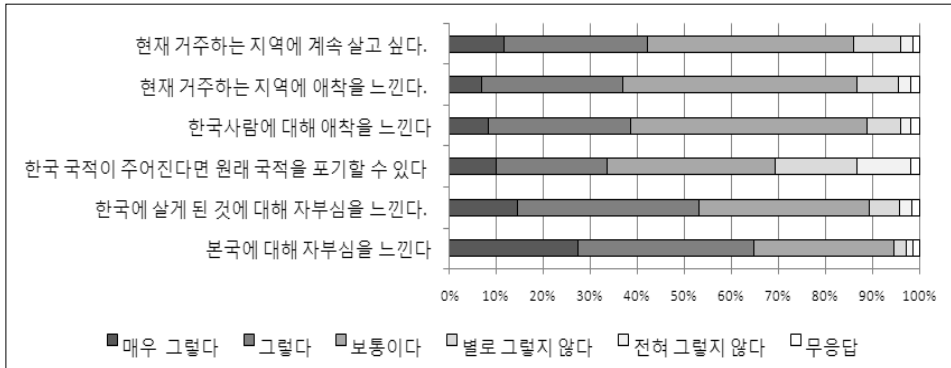


그림 10.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정체성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는 한편으로 자신을 살고 있는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거나, 최소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자신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 주민들도 상호간에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공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 공동체의 형성이 어려운 점은 인종적, 문화적 차이에 근본적으로 기인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공간적 여유와 상호 노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한편으로 본국의 국적으로 유지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지역주민이 되고 싶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사회관계적 제약으로 인해 지역주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교란된 정체성을 가지고 한계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7. 결론

공간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조직하는 바탕이 되며, 이에 의해 조직된 사회공간적 관계 속에서 이들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조건지우는 자유/제약의 기본 틀이 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편으로 국경을 횡단하여 새로운 국가의 지역사회에 정착할 정도로 공간적 이동성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특정 장소에 정착하면서 매우 제한된 시공간적 틀 속에서 생존·생활해 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상생활의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탈지역적,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다중스케일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생존과 생활영역을 탈영토적으로 확대시키고, 자신의 삶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생활공간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겪는 다양한 유형의 (시)공간적 제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대해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자료에 기초하여 고찰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에 대해 가시적으로 만족 및 긍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태도는 상당 정도 구조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따라서 실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가식적 또는 허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상품화된 노동력으로서 초국적 이주와 낯선 장소에서 이방인의 소외된 삶을 선택했으며,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일터와 생활공간에 최소한의 만족과 긍정을 하도록 조건지워져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 이들은 타자의 '영역'으로 만들어진 일터 속에서 주당 70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사용자나 관리자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주거, 소비, 여가 등을 위한 생활공간에서도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이동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가는 장소에 대

한 뿌리내림은 중층적으로 가해지는 제약들로 인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겪게 되는 이러한 제약들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본국 출신의 이주자들과 국지적 및 탈지역적 네트워크, 그리고 본국 가족 및 친지들과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주어진 제약들에 대응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다중스케일적 네트워크의 구성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삶과 장소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전략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일의 정치’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노력은 극히 제한된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시공간적 제약들을 벗어나도록 하기에는 분명 한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한계는 물리적 공간이나 외부 환경에 대한 지리적 지식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장소에 대한 안전감으로서 장소의식, 그리고 주어진 외적 제약들을 탈출할 수 있는 지리적 상상력의 확보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결국 본국과 한국에 대한 이중적(또는 혼종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과거 친숙했던 삶의 현장과 새롭고 낯선 삶의 현장 사이에서 교란된 지역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주

- 1)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연구는 지리학적 연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간적 측면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함의하고 있다. 예로, 정건화 외 (2005)의 제2부 논문들, 그리고 보다 최근의 연구로 윤인진(2008), 이미애(2008), 김현미(2009) 등 참조. 이러한 연구는 공간이 간과된 연구(예로, 김영란, 2008)와 비교된다.
- 2) 설문조사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 6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설문조사는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한국어와 더불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되어 배포·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 가운데 이주노동자에 한정하여 유의한 설문지 3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대상자의 행태적, 정량적, 총량적 특성만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는 방법론 자체의 한계와 더불어 특히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의미의 전달과 표현의 부정확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병행했으나, 이 역시 이주노동자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발성이나 전달의 정확성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3) 기존의 다른 조사(이주노동자인권연대, 2005)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사업장 이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응답자 가운데 69%가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기고 싶다고 대답을 하였는데 이중 43.9%가 장시간 근로 및 과도한 노동을 이유로 사업장 이동을 희망하였고, 27.1%가 낮은 임금 때문에 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작업장을 이동하고 싶어 했다. 이러한 점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주 1회 휴일이 지켜지지 않고, 하루 열 두 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와 과도한 노동, 작업장 내에서의 비인격적 대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4)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의 제약에 대해 그냥 참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들은 이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직이 용이하지 않을 때는 기존의 일터에서 예로 태업을 할 수 있다. 다음 사례 참조(김수재, 2008, 175).
“반장은 항상 나를 보면 빨리 빨리 일을 하라고 한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반장은 시도 때도 없이 빨리 하라고 소리를 지른다. 나는 반장이 보지 않을 때 일부러 천천히 일을 한다. 그러면 물건도 적게 나오고 불량품도 많이만 들어진다.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반장이 싫어서 어쩔 수 없다”(29세 남자, 인도네시아).
- 5)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임금 관련 항목은 등급으로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도 무응답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 임금을 지역별로 추정하기 어려웠다. 중소기업청(2005)에 의하면, 2004년 전국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106.6만원이었고, 서울 92.9만원, 대구 106.7만원, 광주 95.7만원, 경기 110.7만원, 전남 98.6만원, 경북 106.3만원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문헌

- 김수재, 2008,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 갈등과 대응 - 인
도네시아 노동자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론총 38,
pp.153-184.
- 김영란, 2008,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
응에 관한 연구,” 담론 2008 11(2), pp.103-138.
- 김현미, 2009, “방문취업 재중 동포의 일 경험과 생활세계,”
한국문화인류학 42(2), pp.35-75.
- 박경환, 2005, “혼성성의 도시 공간과 정치: 로스엔젤레스
한인타운에서의 탈정치화된 민족성의 재정치화,” 대한
지리학회지 40(5), pp.473-490.
- 박배균, 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
지 공간적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pp.616-634.
- 유명기, 2004, “국제이주노동자,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미
래,” 당대비평 18, pp.12-35.
- 윤인진, 2008,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 문화역
사지리 20(1), pp.1-18.
- 이미애, 2008, 가리봉동 중국거리에서의 조선족 여성의 위
치성에 대한 문화지리적 연구, 중앙대 문화연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2005,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고
용허가제 시행 1년, 그 실태와 개선 방향).
- 정현주, 2007, “공간의 틈에 갇힌 그녀들?: 국제결혼이주여
성의 이동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pp.53-68.
- 정현주, 2008,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
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6),
pp.894-913.
- 조창현, 2006, “도시와 신시간지리학,” 김인·박수진 편, 도
시해석, 서울: 푸른길, pp.262-278.
-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 2005,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
고서.
- 최병두, 2008, “도시발전 전략에 있어 정체성 형성과 공적
공간의 구축에 관한 비판적 성찰,” 한국지역지리학회
지 14(5), pp.604-626.
- 최병두, 2009a,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3), pp.369-392.
- 최병두, 2009b,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정 투쟁의 공간으로,” 한
국지역지리학회지 15(5), pp.635-654.
- Beck, U., 2000, “The cosmopolitan perspective: sociology
of the second age of moderni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1), pp.79-105.
- Fuchs, C., 2007, “Transnational space and ‘network
society,’” *Twenty-First Century Society* 2(1), pp.49-78.
- Giddens, A., 1985, Time, space and regionalisation, in
Gregory, D. and Urry, J. (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London: Macmillan, pp.265-295.
- Hägerstrand, T., 1970, “What about people in regional
science,”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4, pp.7-21.
- Harvey, D., 2009, *Cosmopolitanism and the Geographies
of Freedom*,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Jessop, B., Brenner, N., and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 pp.389-401.
- Jones, M., 2009, “Phase space: geography, relational
thinking, and beyon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3, pp.487-506.
- Roudonetof, V., 2005, “Transnationalism,
cosmopolitanism and glocalization,” *Current
Sociology* 53(1), pp.113-135.
- Yeoh, B. S. A., 2004, “Cosmopolitanism and its
exclusions in Singapore,” *Urban Studies* 41(12),
pp.2431-2445.
- 교신: 최병두,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대구대
학교 사범대 지리교육과, 전화: 053-850-4155, 팩스:
053-850-4151, 이메일: bdchoi@daegu.ac.kr
- Correspondence: Byung-Doo Choi, 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Naeri-ri, Jilyang-up,
Gyeongsan-si, Gyeongbuk, 712-714, Korea, Tel:
053-850-4155, Fax: 053-850-4151, E-mail: bdchoi@
daegu.ac.kr

최초투고일 2009년 9월 1일
최종접수일 2009년 12월 21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2, No.4, 2009(319~343)

Spatial Characters of Workplace and Everyday Life of Immigrant Workers in S. Korea

CHOI, Byung-Doo*

Abstract : This paper considers some kinds of socio-spatial constraints and strategies for overcoming them which immigrant workers in Korea have experienced in their work-place and life-space, with an analysis of questionnaire data and of direct interview materials on them. Though they appear somewhat satisfactory or positive with their work-place, this can be seen as a hypocritical or false attitude rather than a real one: they are forced to work with long hours (more than 70 hours per week) and rigid controls in the other' territory. Their daily life-spaces also are severe: they can be hardly embedded in an existing community with a sense of place due to serious institutional and interaction constraints, even though they seem to have a basic mobility to survive in life-spaces. In order to escape or alleviate such local constraints, they try to constitute multi-scalar (local, trans-regional, and transnational) networks, and to find informations and means to resolve or cope with them. However, this kind of endeavors of immigrant workers to make a trans-national network and social space has a limitation for them to be free entirely from constraints, which might be strengthened with a lack of geographical knowledge of them. Then immigrant workers in Korea live ineluctably with not only hybrid national identity but also with disturbed local identity in an aliened workplace and life-spaces.

Keywords : Immigrant worker, work-place, life-space, network, scale, regional identity

* 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bdchoi@daegu.ac.kr